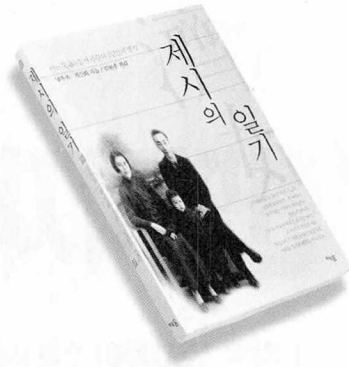


협난한 시대 헤쳐온 고난과 사랑의 기록

《제시의 일기》 펴낸 최선화·김현주씨



1940년 5월 9일 흐린 날, 중국 사천성 기강땅. '제시'라는 이름의 세 살 난 아이가 머물지 못한 발음으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까지 노래 부른다. 조국을 잃어버린 망명객 아버지는 딸의 뒤를 이어 속으로 불러본다. 샅대도 뚫대도 없이 떠가는 하얀 쪽배가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느 독립운동가 부부의 8년간의 일기'를 부제로 단 《제시의 일기》(혜음)의 한 장면이다. 1938년부터 1946년까지 당시 임정 요인이었던 양우조와 부인 최선화가 딸 제시와 함께 임시정부를 따라 중국 각지를 전전하면서 기록한 이 낡은 일기장이 외손녀 김현주(27)에 의해 빛을 보았다. 자라나는 딸에 대한 부모의 사랑, 동포들 사이의 인정, 폭력에 쫓기는 고단한 처지 등이 담담하게 그려져 있다.

"지난해 봄쯤 할아버지 유물가방 속에 담긴 일기장을 처음 보았어요. 협난한 시대에 힘든 삶을 선택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살아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보다 더 강인하게 살았더군요. 생전에 뵈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바로 앞에서 만나는 듯했어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성장하는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어디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 구성작가로서 마침 출산 때문에 휴직할 상태였던 김현주씨는 이 일기장을 보고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한 개인의 기록이기 이전에 당대인의

보편적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료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최선화, 88)는 현재 분당에서 딸 제시(61)와 함께 살고 있다. 가끔 산책도 하고 신문과 드라마를 볼 정도로 정정하다. 세월의 흔적은 피하기 어렵지만 기억만은 여전하다.

"당시 임시정부를 따라 여러 곳을 옮겨다녔지요. 딸 제시가 커가는 모습, 교포들의 살아가는 분위기 등을 번갈아 기록했지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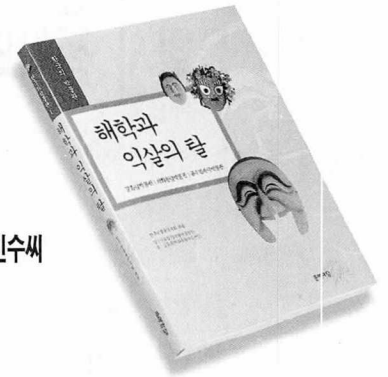
일기가 시작되는 해 중국에서 태어난 제시는 이제 예수를 믿은 할머니가 됐다. 너댓 살 때의 일은 어렵듯이 기억난다. 특히 김구선생이 불을 부비면서 좋아하시던 것, 이시영선생이 무릎에 앉히고 귀여워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잡힐 듯하다. 부모의 일기를 보고 세삼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편한 길을 버리고 구태여 협난한 길을 택한 부모님의 삶이 자랑스럽지만 해오 부친은 항상 숨어서 일하는 분이셨어요.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나누려고 했어요. 봉사와 희생의 삶을 깨우치신 분이셨지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양우조의 유물은 국가보훈처에서 자료집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김현주씨는 이번 책을 펴내면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새삼 깨달았다. 이화여전 5회 졸업생이었던 할머니가 소장한 사진을 바탕으로 여자대학의 근대사를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다. —박천홍 기자

박물관에서 만나는 우리의 탈

《해학과 익살의 탈》 펴낸 한국박물관연구회의 정인수씨



고성오광대 탈놀이 제4과장을 보면 잿양반이 "그러면 육산고기도 잘 먹나?"하고 묻자, 비비는 "잘 먹지"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잿양반이 "나 양반이다"고 말하면, 비비는 냉큼 "양반은 더 잘 먹는다"고 말한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탈과 해학 넘치는 대사 때문에 우리 탈놀이는 언제 봐도 재미있다.

한국박물관연구회는 박물관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단체다. 두산동아의 사회보인 《백년이웃》의 기획팀이 주축이 돼 우리나라에 특수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던 80년대 후반부터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등 전국 100여 군데를 답사했다. 이번에 나온 《해학과 익살의 탈》(문예마당)은 그 첫번째 성과로 갈촌탈박물관·하회동탈박물관·공주민속극박물관 등 탈 관련 박물관을 답사한 결과를 정리했다.

"탈은 탈 나는 것을 막는 데 쓰는 물건입니다. 그 기원은 주술적이라는 말이죠. 예컨대 우리나라 최고의 탈이라는 하회동 탈 역시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탈의 기원을 알면 탈의 생김새, 각 탈이닌 의미 등도 쉽게 알 수 있죠"

연구회의 회장이며 시리즈의 첫째권 필자인 정인수씨(38)는 탈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다. 정인수씨도 스스로 밝히듯 이 책은 탈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는 좀 거리가 멀다. 우리 탈에 대한 일반인의 거리감을 좁혀 친숙하게 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물론 최근 학문적 연구결과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출판이 가능했죠. 하지만 초점은 실용에 맞췄습니다.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쉽게 탈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이 책은 해당박물관장의 감수를 받아 300여 장의 다양한 사진과 각 박물관의 행사 내용, 관련 자료를 한데 모은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전국에 흩어진 좋은 박물관을 소개하고 박물관의 각 소장품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일러주는 계기가 된다.

한국박물관연구회는 이런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다음 작업은 6월쯤 결실을 볼 예정. 《돌맹이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의 이 책은 양구선사박물관과 경보화석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대 유물을 살핀다. 이어서 한국무속박물관과 목이불교박물관을 다룬 《금기와 터부》, 옹기박물관과 기와박물관을 다룬 《투박함과 정겨움》 등이 준비중이다.

"1차로 내년까지 10권을 펴낼 생각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책을 펴낼 계획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다양한 박물관이 많이 개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이 박물관 문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김연수 기자



그녀는 그들을 정말 만났다

《나는 정말 그를 만난 것일까》 펴낸 황경신씨



글을 쓰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인터뷰가 그 사람을 오히려 감춘다는 것을.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증명해보리라. “나는 정말 그를 만난 것일까. 황경신씨(34, 페이퍼 편집장)의 인터뷰집도 그런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잡지사 기자 노릇을 할 때, 어떤 때는 5분 만나고 기사를 쓸 때가 있었어요. 자료로 쓰면 되지만 그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때는 완벽한 전기를 쓰겠다는 의욕도 있었지만 허황된 욕심일 뿐이었다. 누군가를 만난 그 순간의 단면만큼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진실이었다. 그래서 아예 4시간 이상 되는 인터뷰 시간 내내 녹음기를 돌리고 그걸 풀어썼다.

“인터뷰를 4시간 이상 해야 한다고 하면 다들 곤란해 해요. 인터뷰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4시간이 6시간도 되고 12시간도 됐다. 《나는 정말 그를 만난 것일까》(소담X)의 11명, 이소라·김창완·신해철·전인권·이홍렬·황신혜 밴드·산울림·유진 박·이철수·강산에·안토니오 신부님도 예외가 아니다.

“친구에게 그렇듯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편하게 하면 사람들은

인터뷰라는 걸 잊어버려요.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나와요.”

이제 알 만큼 알 텐데 왜 인터뷰할까 의아해 하는 이소라는 기어코 “그래도 오늘은 참 재밌어”하고 말한다. 뻔한 내용을 물어보면 옛날 잡지 주면서 “이거 보고 써” 했던 무뚝뚝한 전인권은 이빨은 하루에 한번 닦는다는 등, 별이 아해서 좋다는 등 별 얘기를 다 털어놓고, 늘 밝은 얼굴의 이홍렬도 어머니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런 그를 일러 ‘무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김창완이다.

“결론 짓는 것, 그런 거 안해요. 《페이퍼》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잡지예요. 흔들어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황경신씨의 인터뷰 방식도 그렇다. 한없이 열어놓는다. 그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의도된 답을 숨겨놓지 않는다. 그러니 만난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거나 서로 사랑하게 된다.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크든 작든 실망은 따르게 마련이니까.

“저요? 낮가림이 심해요. 신문·TV를 보지 않고,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요즘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록밴드를 결성하고 싶어요. 전 키보드 말고 잡자는 것 좋아해서 어떤 때는 12시간씩 자요. 앞으로 수영을 배울 거예요. 또 죽기 전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태지와 백남준 선생님 인터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현주 기자



시공을 넘나드는 우주 삼국지

《피라미드》 펴낸 이종호씨



대한민국 건축대전 초대작가이며, 프랑스 과학국가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자 이종호(51, 한국이동에너지연구소장)씨가 시공을 넘나드는 ‘휴먼 코스모스 소설’ 12권을 펴낸다. 지난달 선보인 《피라미드》(새로운사람들·자작나무 공동제작) 제1부 4권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학이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든 데는 과학자의 책임이 큼니다. 과학을 전도해야 하는 과학자 스스로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지요.”

과학자인 그가 과학적 현상을 매개로 허구적 세계를 연출한 첫째 이유는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아인슈타인처럼 전문 언어로 글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소설은 혜성과의 충돌로 폐허가 된 우주 행성 ‘알프’의 5천년에 걸친 재건 프로젝트가 즐거리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혜성과의 충돌은 가상의 우주에서 벌어지는 현상만이 아니라 지구 또한 일어날 수 있다는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다.

“우주공간에는 태양계와 같은 조건을 가진 혜성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래 우주개발 계획은 이러한 근거를 기초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거나 행성을 지구처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우주 어느 공간에는 지구와 같은, 더욱 지능이 발달한 우주인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우주를 향한 궁극적인 염원에 반해 우주로부터 지구로의 향진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박사는 추론의 근거를 인류기원의 수수께끼인 피라미드에서 찾고 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인간(미래)의 환생과 초광속 우주여행, 타임머신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허구적 장치를 마련해 장차 인간이 추구할 우주과학의 길을 모색한다.

이 소설은 주변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출발했다. 두 출판사가 공동제작한 것도 이채로운데, 소설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업체 ‘미디어프리’와 컴퓨터그래픽 업체인 ‘모투스’가 컴퓨터게임과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돌입했다. 영화 《쉬리》의 영상을 담당했던 ‘유니온’사와도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11월경 50권짜리 만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소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산업을 병행하자는 것.

“소설은 기존의 SF나 판타지와는 다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실험과 이미 검증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기대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애정도 각별한 그는 《현대 과학으로 다시 보는 세계의 불가사의 21가지》(… 한국의 유산 21가지)(새로운사람들) 등을 펴냈다. 한국 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 점검위원장직을 맡을 정도로 만화에도 관심이 깊다. 소설은 이처럼 본업인 과학의 영역을 넘나드는 상상력이 빛은 결과물이다. 앞으로 피라미드 이론에 관한 책을 펴낼 예정이다. —오완진 기자

